

“흥겨운 어린이 국악 놀이터로 놀러오세요”

전남도립국악단, 애니메이션 ‘겨울국악동요’ 온라인 3편 공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구연동화극 ‘신나는 국악여행2’
국립남도국악원, ‘새해 해 나래’ 설날 특별공연

대한민국에 ‘국악’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화제가 된 ‘조선판스타’나 ‘풍류대장’ 등 국악 프로그램에서는 김산옥 등 스타들이 배출됐고, 퓨전 국악과 크로스오버 곡은 유튜브에서 수백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돼 눈길을 끈다. 전래놀이 노래 등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국악교육프로그램, 구연동화극에 국악을 접목한 공연 등도 열린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은 코로나 19로 집콕에 지친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겨울국악동요’ 시리즈를 선보인다.

전남도립국악단이 동요를 국악으로 편곡,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는 27일 전래놀이 노래 ‘냇물이 쫓쫓’을 시작으로, 남극펭귄 대합창 ‘롤루랄라 뽕뽕뽕’, 소꿉놀이 노래 ‘꼬방꼬방’ 등 3편의 영상이 전남도립국악단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냇물이 쫓쫓’은 설매 탈 때 줄짜 부르던 전래동요 노랫말에 새로운 가락을 덧입힌 곡으로, 전남도립국악단 창작부 단원들의 익살스러운 랩(Rap) 스타일의 판소리 ‘아니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어 내달 3일 공개 예정인 남극펭귄 대합창 ‘롤루랄라 뽕뽕뽕’은 롤·랄·라·빙·퐁·뽕·뽕·남극 펭귄들의 언어를 상상해 만든 노래로, 장구 여섯 대

로 연주하는 ‘동살풀이’ 장단에 휘파람과 피리 추임새, 오케스트라 앙상블을 더해 영화 ‘겨울왕국’과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했다. 특히 이 작품은 지구온난화로 펭귄 서식지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펭귄들의 노랫말로 들려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고자 한다.

겨울국악동요 마지막 공개작인 소꿉놀이 노래 ‘꼬방꼬방’은 전래놀이 노래로 전해져 온 노랫말과 가락에 서정적 편곡을 더한 작품으로, 국악 앙상블과 다사로운 그림체가 만나 어린 시절의 아련한 감수성을 자극한다.

이번 ‘겨울국악동요’ 시리즈의 연출과 작·편곡은 ‘모두 다 꽃이야’, ‘내 똥꼬는 힘이 좋아’ 등을 작곡한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애니메이션 제작은 조준행 감독이, 노래에는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과 광주교대 목포부설초 학생 등이 참여했다.

‘겨울국악동요’ 시리즈는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원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도립국악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생을 위한 국악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제작한 ‘각지 손 e 국악’ 단소편을 선보였다. 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이자 단소 연주자인 윤암현·강원집 단원이 강사로 나섰다. 운지법과 소리 내기 등의 단소 기본기부터 초등 교과에 수록된 민요, 전래동요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전 연습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영상은 전남도립국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 창단 27년만에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구연동화극을 선보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올해 그 두번째



◀ ‘냇물이 쫓쫓’
▼ ‘꼬방꼬방’

공연 ‘신나는 국악여행 2’를 준비 중이다. ‘신나는 국악여행 1’에서는 ‘별주부전’,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어떤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지 기대를 모은다.

국립남도국악원은 2022 설날 특별 공연 ‘새해 해 나래’ (2월 1일 국립남도국악원)를 J-ARANG 청소년예술단과 무대를 꾸민다. J-ARANG 청소년예술단은 국악 명인명창을 꾸미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이날 공연에서는 동요 ‘설날’, ‘앞으로 앞으로’ 등을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과 함께 들려준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에서도 국악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작품은 총 두 편으로 종이인형 애니메이션 ‘항아리’와 ‘니롱내롱’이 업로드됐다. 성찬경이 작곡·작사하고 송정이 편곡한 ‘항아리’는 2015년 창작국악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니롱내롱’은 오나훈의 곡을 이정면이 편곡한 작품으로 2015년 창작국악동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광구 조각가, 광주미협 회장 선출 “기획력·행정력 키우고 회원들과 완성해 가는 신뢰받는 미협 만들 것”



조각가 박광구(사진) 작가가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이하 광주미협)를 이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미협은 22일 오후 무등파크호텔에서 신임 회장 선거를 위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12대 회장으로 기호 2번 박광구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19명이 가운데 928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에서 박광구 후보는 508표, 득표율 56%를 기록해 신임회장으로 뽑혔다. 기호 1번 문재평 후보는

241표, 기호 3번 김영화 후보는 152표를 얻은 데 그쳤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현 집행부(회장 박수중)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조선대 미술교육학과와 동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회장은 광주시문화예술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광주파인아트포럼대표, (사)한국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사)전국조각가협회, 백학조각가회, 남도조각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박 신임 회장은 “기획력·행정력을 키우고 투명한 운영으로, 회원들이 ‘함께’ 완성해가는 신뢰받는 미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미술인들이 협회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쇄신과 공정한 운영, 신뢰 구축을 통해 광주미협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관에 따라 원칙을 지키며 협회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이다 보니 행정력과 기획력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회원들과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미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박 신임회장의 공약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기업 메세나 기금 1억원 확보였다. 회장 선출 후 그는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영무 예담으로부터 4년간 1억원의 후원금을 약속 받았으며 매년 협회소속 작가들의 전시회를 통해 우수작가를 선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회원들을 위해 기업 메세나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1억 원 아니라 기업들과 더 많은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비엔날레전시관 등 협회가 활용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또 5개 구청과 연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확대, 광주아트페어 재수탁 추진, 글로벌비즈니스 온라인 작품 판매 시스템 구축 등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작업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교직(석산고 교사)에 34년간 있으면서 행정 업무에도 익숙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추진력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4년 임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롤루랄라 뽕뽕뽕’

‘솔직한 이야기’ 짝퍽한 일상의 위로

최다솜 개인전, 27일~2월16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최다솜 작가 개인전이 오는 27일부터 2월16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기획이다. ‘외강내유 솔직한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짝퍽한 일상의 위로가 됐던 ‘바위’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 작가는 힘겨운 순간이면 바다를 찾았다. 그 곳에서 바다와 바위가 보여주는 빛나는 색채와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는 했고, 그 때의 기억과 감정을 시각화 해 작품으로 완성했다.

각기 다른 모양과 색채를 갖고 있는 다채로운 바위가 마치 사람과 같은 존재로 느껴졌고, 바위 속에 지친 감정, 슬픔, 혼란, 일탈 등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 추상적으로 표현해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는 그에게 위로와 안도감을 안겨줬다.

최 작가는 “나의 작업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성의 의미를 숭고한 자연과 그와 상반된 회색빛을 띤 그림자에 빛대 추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작품에 담긴 표현들이 얼핏 단순한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그안에 담긴 복잡미묘한 감정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화문에서’

최 작가는 원광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남대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첨가물 0
무첨가물